

특별기고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품고 살자



정기연 주필

러나 희망이 없으면 죽음뿐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으며 일할 수 없어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품으면 죽음뿐이다. 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의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희망이다. 물론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희망이다. 우리나라가 13년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1등이 있다. 자살률 1위이다. 세계 2위와는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는 1위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4명이다. 그런데 2위는 10만 명당 46명이다.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살 공화국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왜 그리 많겠습니까? 못 먹어도 아니요, 못 살아서도 아니다. 희망이 없어서다. 굶주리는 사람, 굶주리는 가정에 쌀 한 가마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을 주는 일이다. 굶주리는 가정에 쌀 한 가마니를 주면 굉장한 선물이지만, 두 서너 달 후에는 빈 쌀가마니만 남고다

시 굶주리게 된다. 그러나 쌀가마니는 못 주어도 희망을 심어 주면 스스로 일어나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기에 교회는 신도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희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희망을 배운 교인들은 세상으로 들어가 희망을 퍼뜨려야 한다. 우리는 마을에서 일터에서 희망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희망을 만들어 전하는 희망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희망의 원리(Das Prinzip Hoffnung)란 책이 있다. 독일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활약한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 1885-1977)가 쓴 5권으로 된 책이다. 에른스트 블로흐를 희망의 철학자라 부른다. 그는 독일에서는 파시즘에 저항하느라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희망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의 희망의 철학에는 5가지 핵심이 담겨 있다. 1)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먹고 산다. 2) 희망을 잃은 자는 이미 삶 자체를 잃은 자이다. 3) 희망은 좌절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4) 희망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배워야 하고 연습하여야 얻어진다. 5)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Ernst Bloch의 희망 원리를 읽고 도전을 받은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다.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 1926-)이란 신학자로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 철학에 도전을 받아 희망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Theologie Der Hoffnung)이란 저서에서 희망 신학을 체계화하였다.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을 주는 희망의 주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못 영혼들에 희망을 심어 주는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희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고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한다.

인생을 살면서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나대로 잘났으며 희망을 품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정상을 향해 가고 있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만들어 품고 살면서 하는 일에 하느님이 함께하신다는 생각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社說

비리백화점 복구의회 '제 식구감싸기' 도를 넘어섰다

비리백화점 복구의회의 '제 식구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복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구성된 수의계약을 파낸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동료의원에 대한 동정심이나 온정주의가 만연해있다.

백 의원은 경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압채를 통해 복구청에서 6천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파낸 사실이 밝혀져 의회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에서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출석정지'를 비난주당 의원들은 '제명'을 주장했으나 결론은 '출석정지'라는 하나하나 한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윤리위 회의장 밖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복구지부 노조원들이 백의원에 대한 '제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징계수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복구의회의 동료감싸기는 지난해 고점례 의장등이 허위 국내출장을 다녀온 것이 밝혀졌을 때 고의장에게 겨우 10일간 출석정지라는 징계로 동료의원의 비리를 봉합하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고의원에게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시간끌기로 버티다가 전반기의장직을 끝까지 고수하는 독심을 보여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었다. 복구의회는 앞으로도 동료의원들을 줄줄이 징계에 나서야 한다. 먼저 고향 선배 업체 물품 납품을 지원하기 위해 복구와 다른 지역 관공서에 해당 업체 명함을 돌린 선순연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여기서 검직 신고를 위반하고 쫓집을 운영하며 복구청에 쫓을 판매한 의원 2명도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역·소독 업무와 관련해 특정 업체 수의계약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의원이 추천한 업체가 복구와 2425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 업체가 한 광주 시의원의 친인척과 연결돼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D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복구의 소속의원 절반 가량 의원들이 비리나 불법행위에 연관되며 의원들의 징계도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의회의 위상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의회 스스로 대응이 '숨방망이 징계', '제 식구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하면서 자정능력마저 상실했다는 뼈아픈 지적에도 속수무책이다.

특히 징계 대상자였던 고점례 의장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비리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문제다. 고의장은 "제 임기가 7월2일까지인데 며칠 남지 않았다. 후반기 의장단이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 갈지 몰라 제가 겨우 10일간 출석정지라는 징계로 동료의원의 비리를 봉합하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고의원에게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시간끌기로 버티다가 전반기의장직을 끝까지 고수하는 독심을 보여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었다. 복구의회는 앞으로도 동료의원들을 줄줄이 징계에 나서야 한다. 먼저 고향 선배 업체 물품 납품을 지원하기 위해 복구와 다른 지역 관공서에 해당 업체 명함을 돌린 선순연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여기서 검직 신고를 위반하고 쫓집을 운영하며 복구청에 쫓을 판매한 의원 2명도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됐다. 또 민주당 소속 C의원도 복구의 방

이정량의 古典探究

이가난진(以假亂眞)

거짓 모습으로 진짜를 혼란시킨다



言論人(中國古典 研究家)

이 계략은 '가짜를 보여 진짜를 감춘다.'는 '시개은진(示假隱眞)'과 같은 '시형법'에 속하지만, '시개은진'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계략이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상(假象)'을 만들어내어 자기쪽의 진정한 의도를 감추려 한다.

1947년 겨울, 등소평(鄧小平)이 이끄는 군대는 황하 복안에 당도했다. 황하 남안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 군대의 불침 병은 야간에 탐조등을 비추다가 북한 수면 위에 쇠 투구를 놀려선 병사들이 소리 없이 남안 쪽으로 해엄쳐 오는 것을 발견했다. 국민당 군의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공산군의 도하 부대가 사정권 내에 들어오면 대포를 발사해서 적을 황하 속에 모조리 수장시켜 버려라!"

도하 부대는 점점 남안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윽고 발포 명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총과 대포가 발사되었다. 강 위로 쇠 투구가 튀어 오르고 선혈이 순식간에 강을 붉게 물들였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당 군대의 등 뒤에서 격렬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국민당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실제 상황은 이렇게 된 것이었다. 공산군의 주력은 일찌감치 밤을 틈타 상류에서 배와 뗏목으로 황하를 건너와 기다리고 있다가 등 뒤에서 공격을 가한 것이다. 이 전투에서 공산군은 적

장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도하 부대란 사실 표주박 위에 쇠 투구를 묶은 다음 그 안에 붉은 물감을 가득 채운 돼지 오줌보를 매달아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표주박 위에는 돼지 창자를 매달아 연결시켰다. 이 '이가난진'의 계략을 알고 난 포로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이가난진'을 실행에 옮기려면 먼저 모든 가능한 조건을 이용,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여 적을 착각에 빠뜨려야 한다. 그런 다음 '진짜'로 진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만약 진짜 같지 않으면 적이 그 허점을 역이용하게 되어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101번길 19-2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회장 김경, 발행·편집인 전광선, 사장 이문수, 편집국장 박종수, 주필 정기연, 대표전화 (062)227-0000, 광고 (062)227-0000,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선문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일한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a library program. Text: '아이에게 꿈을 위해 주시길' (Give dreams to children). Details: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 Website: www.jndomin.kr. Campaign: 전남도민일보 캠페인.